

# 아파트 조망권 프리미엄에 영향

## 브랜드 · 개별적인 물건 선정에 관심 가져야... 2000~5000만원정도 차이

아파트 구입도 이제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개별적인 물건 선정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아파트와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나 가격 활성화보다는 조망권 등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바라는 아파트가 프리미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조망을 다른 요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층이 늘고 있어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망권 아파트들은 10년이 지나도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시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전주지역 아파트의 경우 조망권에 따라 매매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변을 바라보거나 언덕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시야 확보가 용이, 2,000~5,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예컨대, 전북혁신도시 우미 1차 아파트는 같은 단지라도 조망권 단지와 비조망권 단지의 가격차가 꽤 컸다.

우미 1차 아파트는 분양당시 2억 2,000여만원(84㎡, 734평)이었지만 조망권이 좋은 3동, 4동은 현재 2억 9,000여만원의 시세를 나타낸 반면에 다른 동은 약 2억 6~7,000만원대로 2~3,000만원 차이가 났다.

또 전북혁신도시 이노 펠리스 아파트 역시 분양 당시 1억 9,000여만원(84㎡, 734평)이었지만 조망권이 좋은 12층의 경우 현재 2억5,000여만원을 형성 다른 동 보다 약 2,000만원 가량 시세가 높았다.

최근 분양한 데시앙 아파트도 분양 전부터 부자 가치를 높게 평가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에코시티 데시앙 2차 1순위 청약접수 결과 7블록은 62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240명이 몰려 평균 3.5배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블록은 68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716명이 청약해 평균 2.4배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7블록에 공급되는 98㎡의 경우 조망권이 우수, 218가구 모집에 906명이 청약을 접수하며 4.15배 1을 기록했다.

조망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아파트도 생겨나고 있다.

전주시 중화신동 현대 아파트의 경우 최근 영무 에다음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조망권을 놓고 입주자간 갈등을 겪었다.

이제는 영무 에다음 아파트가 단지 앞 신축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건설회사와 불꽃 투기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불똥이 행정에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영무 에다음 입주자로서 아파트 매매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건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우리집 인테리어 소품 만들어보세요 9월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과 어린이가 FIX 선반을 선보이고 있다

## 글로벌 전문가 꿈꾸는 'IT마스터' 모집

###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16일까지 신입 교육생 모집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차세대 글로벌 IT 전문가를 꿈꾸는 예비 IT마스터를 모집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무역아카데미는 오는 16일까지 SMART Cloud IT마스터 과정(이하 SC IT마스터 과정)에 참여할 32기 신입 교육생을 모집한다.

SC IT마스터 과정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 온 대표 IT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졸업생 모두에게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

교육생들은 약 11개월 동안 강도 높은 ICT 및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수료 전, 해외 유수의 IT기업들과의 면접 알선을 통해 해외취업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취업률은 98%로 2013년부터는 교육과정 및 해외 취업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IT기업들로부터 SC IT마스터 과정 졸업생들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이 채용을 희망하는 일본 IT기업들이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일본 최대 온라인쇼핑기업인 '라쿠텐'에 졸업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려 대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선발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이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정부로부터 총 교육비의 80%(800만원)를 지원받게 되며 교육생 개인이 부담하는 1인당 수강료는 200만원이다.

참가신청은 한국무역협회 SC IT마스터 홈페이지(www.itmasters.org)를 통해 접수가능하다. *신광영기자*

## 이스타항공, 올림픽 특가 프로모션 진행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은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8월 15일까지 5일간 올림픽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탐승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으로, 국내선(김포-청주 군산-제주) 항공권이 최저 1만1,900원(편도총액 운임)부터 제공된다.

국제선은 각 노선 편도 총액운임 기준으로, 인천-도쿄(나리타) 8만 3,000원~, 오사카(간사이) 8만2,000원~, 후쿠오카/오사카나 8만원~, 홍콩 8만7,000원~, 코타키나발루 12만3,000원~, 씨엠립 11만7,000원~, 타오위안(타이페이) 8만2,000원~, 김포-송산(타이페이) 9만2,000

원~부터 제공된다.

중국노선은 각 노선 편도 총액운임 기준으로, 인천-지나(제남) 6만 8,000원~, 청주-선양 7만3,000원~, 푸둥(상하이) 6만3,000원~, 엔지(런칭) 10만3,000원~부터 제공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estarjet)에 대한 미국 올림픽 태극전사들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준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starjet.com)와 모바일 웹(앱)에서 확인 및 이용 가능하다. *신광영기자*

## 휴가철 모바일 사용 비중 증가

휴가가 집중되는 극성수기 7월부터 8월 초에 모바일 쇼핑 이용고객도 평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마켓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체 매출 중 모바일 비중을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 최대 88%에 달하는 매출이 해당 기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름 방학과 휴가 성수기 기간이 겹치는데다 계속된 폭염까지 영향을 미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9마켓은 분석했다.

*뉴스시스*

## 정부, 누진세 개편요구에 난색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력 소비를 적게 하는 가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체화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는 709.5원으로 11.7배가 된다.

정부는 1~4단계에 속하는 가구는 원가 이하로 전기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42kWh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구가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덜 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평균 전력을 600kWh 사용하는 가구(6단계 적용)는 전체 가구의 4.0%에 불과했다. 이전 단계인 5단계도 12.3%였다.

누진제 개편이 전력수요를 크게 늘려 전력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채 실장은 "누진제는 전력소비를 적게 하는 가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전력소비를 많이 하는 가구에는 패널티를 주는 구조"라며 "여름철 전력 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전력수요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2011년에 9.15 정전사태의 재발을 우려해서다. 해마다 전력 수요가 원자력 발전소 2기 만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뉴스시스*

## 구직자 대부분 면접관 태도에 '불쾌'

### 사람인 설문결과 73.5%가 부정적 경험 겪어... 직무와 관련없는 평가 등 이유

구직자 10명 중 7명은 면접 진행 과정이나 면접관의 태도 등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948명을 대상으로 '면접 중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3.5%가 '있다'라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78.9%로 '남성'(68.9%)보다 불쾌했던 경험이 더 많았다.

면접에서 불쾌감을 느꼈던 부분은 '거만한 자세 등 면접관의 태도'(41.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성의 없이 짧은 면접'(34.7%), '지원서류 숙지 안함'(34.3%), '스펙에 대한 비하 발언'(33.1%), '가족사, 종교 등 사적인 질문'(31.9%), '반말 등 면접관의 말투'(29.6%), '나이 성별 등의 차별적 질문'(28.1%), '면접관이 늦는 등 긴 대기시간'(25.8%) 등의 답변

이 이어졌다.

불쾌하다고 느낀 이유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평가 받기'(47.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46.6%),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져서'(32.3%), '면접이 끝나기도 전에 탈락을 감지해서'(29.4%)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18.1%) 등의 이유가 있었다.

면접 중 불쾌감을 느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71.7%(복수응답)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다'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더욱 성의 있게 면접에 임했다'(20.1%), '타나게 건설적으로 면접에 임했다'(13.6%),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6.9%) 등의 순이었다.

또, 면접이 끝난 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인 88.4%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신광영기자*

그렇다면, 면접에서 느낀 불쾌한 감정이 해당 기업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려 96.1%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으며, 68.1%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선택했다.

또, 76.6%는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기업에 합격할 경우 '입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47.3%)가 많은 면접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낀 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입사를 거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의 임민국 팀장은 "구직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면접 진행은 우수 인재가 이탈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면접관은 기업을 대변하는 만큼 발언 및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